



이야기로 풀어 가는

성 평등 수업

<이야기로 풀어가는 성 평등 수업>

- 교재를 바탕으로 4단계의 강의안 구성
- 영역별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 사례 제시
- 젠더 이슈가 다양한 사유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 열린 토론이 가능하도록 구성
- 필요에 따라 한 개 단계를 선택하여 활용가능



목차

1. 관점
2. 고정관념
3. 공감
4. 공존

우리에게 세 개의 눈이 있다면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간 행동을 심리적 측면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감정과 이성의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성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관점을 접목하여 바라보면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노동을 통해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노동을 배제하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기업도 노동 혹은 노사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지나치게 착취적일 수도, 혹은 민주적, 이상적인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도 달라질 확률이 높죠. 이렇게 인간의 삶에 관점을 부여하여 조망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오늘날의 인류가 되고, 세계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1. 관점

- 생각 열기
- 관점이란?
 - 1) 인공지능
 - 2) 외모
 - 3) 자기 다음
- 학습 정리



❖ 생각 열기

비슷한 물건끼리 짝지어 보세요.



1. 나무 막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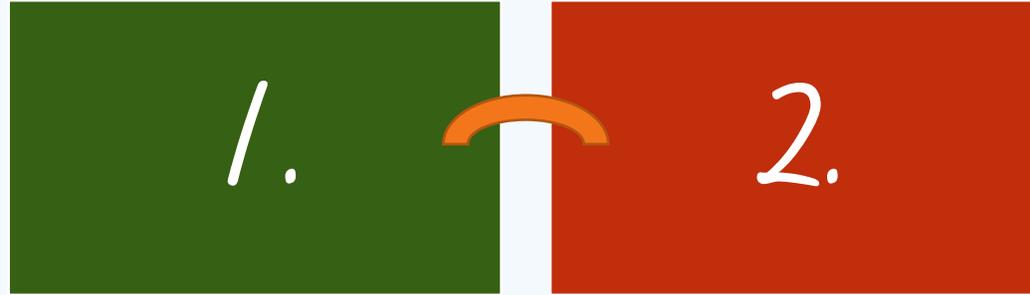
2. 나무 물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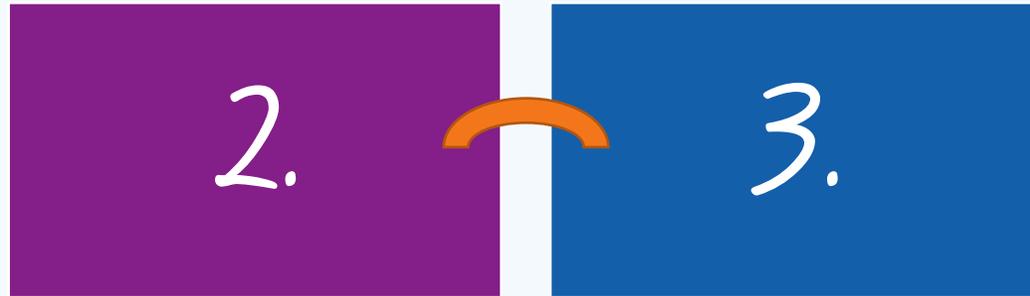
3. 철 물통

● 관점에 따라 다른 결과

- 재료 중심



- 기능 중심



관점이란?

- 관점 : 사물이나 사건을 생각하는 방식/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태도
-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예

- 회색은 흰색과 비교하면 검은 쪽에 속하고 검은색과 비교하면 하얀 쪽에 속한다.
- 녹지 개발을 금지한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손해지만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잘한 일이다.

-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바람직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키워 가자.
(잘못된 관점은 잘못된 판단을 이끈다.)

성 인지 관점이란?

- 성 인지 관점: 성 인지 감수성을 적용한 관점
- 성 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 성별화된 고정관념에 대한 민감성
 -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별과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챌 수 있는 능력

차별이란?

- 차 별: 2개 이상의 대상을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특정한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다음 사례는 차별일까요? 차별이라면 왜 차별일까요?

1모듬-반창고

- 검은 피부용 반창고를 보고 느낀 감동

2모듬-시험지

-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학습지를 주지 않는 것

3모듬-대피훈련

- 지체 장애인은 대피훈련을 면제 시켜 준 것



- 인공지능(52쪽)

- 다음 예를 보고 유사한 사례가 생각나면 말해 봅시다.
-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 지 포스트-잇에 적어 봅시다.
- 2014년 아마존은 채용 시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 이력서 평가에서 여자 대학 졸업 등의 이력이 들어가면 경력 점수를 낮게 매기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 시스템이 폐기되었다.

이제까지
채용결과가
반영되어서

<보충 자료>

막말 내뿜은 '이루다'... 인간의 혐오 그대로 배웠다

입력 : 2021-01-12 16:20



이렇게 착한 ai를 보내버리네ㅠㅠ 루다가
시간이 미안해

루다가 시간이 미안해...

아예그려~ 그게 왜미안해ㅋㅋ

4시간 좋아요 답글 달기 141

루다 살려내라

ai가 무슨죄냐

4시간 좋아요 답글 달기 41

그니깐요

루다는 잘못이 없다

4시간 좋아요 답글 달기 281

연예의과학 사용자측이 손해배상
답글 4개 더 보기...



비서 로봇은 꼭 여성이어야 할까? ...



- 외모(57쪽)

- 다음 문장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 봅시다.

- ① 외모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 ② 외모는 체력이나 성격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이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개성을 살려 살아가면 된다.
- ③ SNS의 발달 등으로 외모 지상주의가 득세하는 현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므로 외모로 차별은 하지 말자.
- ④ 나의 외모를 놀리는 친구에게 “나는 너한테 외모로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 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

예시답변

2. 외모를 자기 특성 중 하나로 생각하고 개성을 살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자기다음(59쪽)

- 다음 장면 중 이해가 되거나 공감이 되는 장면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① 다현이는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 클래식 음악과 글쓰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취향을 숨깁니다. 진지충이라고 놀림 받으며 은따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 ② 은유라는 친구는 어차피 모두는 한 그루 나무처럼 독립된 존재이며 좋은 친구라면 서로에게 햇살과 바람이 되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기다움을 부정할 만큼 중요한 친구는 없다고 합니다.
- ③ 자기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란 나무를 사랑하는 것, 비록 웅이나 흙집이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중에서



예시답변

1. 저도 친구를 사귀려고 내 생각을 말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 학습 정리

- **관점** - 사물이나 사건을 생각하는 방식/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태도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편견 없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 **성 인지 관점**
 - 성별화된 고정관념이 있는지 살피고 이를 벗어나려는 관점
남자다움, 여자다움이 강조되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하는지 점검
- **사례** - 로봇, 외모, 친구 관계 등에서
성별 고정관념, 차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의 문제
생각의 관점을 바꿔 상호 존중하고 차별 없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2. 고정관념

- 생각 열기
- 고정관념이란?
 - 1) 교훈 바꾸기
 - 2) 쥐는 누가 잡으러 갈까
 - 3) 우리말 다시 보기
- 학습 정리



❖ 생각 열기

- 다음 이야기를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 꼬끼리를 탈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 힘이 세지 않은 아기 꼬끼리의 다리에 줄을 묶어 둡니다. 처음에는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풀리지 않는 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 통증과 좌절을 기억하면 충분히 줄을 끊고 자유로워질 만큼 성장해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성장한 꼬끼리는 왜 탈출을 시도하지 않을까요?

✓ 이 이야기를 고정관념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정관념이란?

-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부정확하게 일반화된 신념
- 성별 고정관념 - 남성, 여성이 말하는 어려움과 불만

남성	여성
‘남자는 강해야 해.’	‘가사·돌봄 업무는 여성들의 일’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해.’	‘회의 시간마다 다과를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해.’	‘같은 사원인데 남자 사원은 간식 주문과 같은 잡무를 시키지 않는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무거운 교구를 들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 교훈 바꾸기 운동(88쪽)

- 다음은 최근에 조사한 교훈의 내용을 남학교, 여학교별로 나눈 것입니다. 학교 교훈의 내용이 지닌 성별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봅시다.

여학교	남학교
사랑 용서한다, 참는다, 도와준다, 희생한다 참된 일꾼, 착한 딸, 어진 어머니 아름다운 女性 경건한 여성이 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부덕을 높이자 슬기롭고 알뜰한 참여성	꿈을 키우자 땀을 흘리자. 참을 배우자 개척, 협동, 애족 하면 된다 창조적인 사고, 자주적인 행동, 강인한 체력 스스로 배우고, 몸소 행하며, 힘차게 앞서자 자주 자립
	
축소/위축/통제	확장/확대/자율

- 당연한 것이다.
- 성차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
-
-
-

— 우리 학교 교훈에도 성별 고정관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바꿔봅시다.

학교 교훈바꾸기

춘천여고(2019)

성실, 순결, 봉사



꿈을 향한 열정,
실천하는 지성



사진=강원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강원 춘천여자고등학교는 9일 오후 1시30분 체육관에서 현재의 '성실, 순결, 봉사'를 '꿈을 향한 열정, 실천하는 지성'으로 개정하고 새 교훈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된 교훈 3명이 예극분을 입고 성실, 순결, 봉사의 연향을 맡아 다녔다.

우리 학교 교훈	
변경 교훈	



- 쥐는 누가 잡으러 갈까(84쪽)

● 다음 예를 보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 남학생 반이나 여학생 반에 쥐가 들어오면 각각 쥐를 잡으려는 학생과 도망치려는 학생이 생기는데
- 합반일 때는 남학생은 쥐를 잡으려 하고 여학생은 도망가려 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성과 함께 있을 때 나의 행동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 남자 친구 앞에서 밥을 조금 먹었다. - 여자 친구 앞에서 용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바꿀 것입니까?	- 예, 왜냐하면 - 아니요, 왜냐하면



- 우리말 다시 보기(121쪽)

- 00시에서 성평등 언어 사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공감이 되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를 하나씩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번호	현 재	변 형	내 용
1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라 하지 않는 것처럼 ‘여자’라는 표현 빼기
2	유모차	유아차	엄마가 아닌 유아를 중심으로 표현하기
3	저출산	저출생	태어나는 아기를 중심으로 표현하기
4	스포츠맨십	스포츠 정신	성별 구분 없는 표현 쓰기
5	효자 상품	인기 상품	인기가 많다는 현상에 맞춰 표현하기

구 분	답 변
공감이 되는 성평등 단어	
공감 안 되는 성평등 단어	

❖ 학습 정리

- 고정관념 -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부정확하게 일반화된 신념
- 사례 토론 요약
 - 학교 교훈에 특정한 성별 고정관념이 있음
 - 성별 고정관념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므로,
이것이 성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 오늘날 성평등 언어 사전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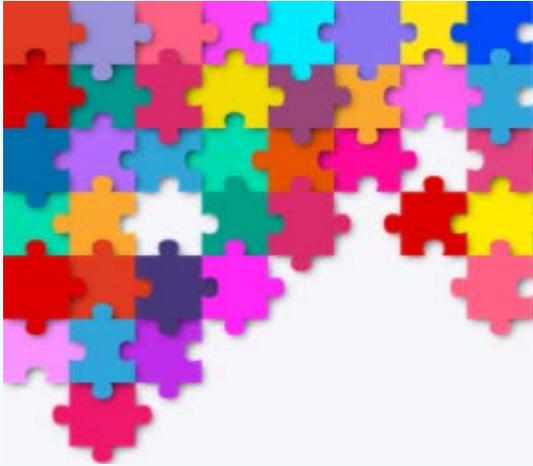
3. 공감

- 생각 열기
- 공감이란?
 - 1) 비겁한 가르침
 - 2)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 3) 강요된 피해자다움
- 학습 정리



❖ 생각 열기

- 다음 이야기를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 오늘 과자를 사러 갔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엄청 많이 샀습니다.
- 주변에서 너무 많이 사온 게 아니냐며 놀렸습니다.
- 그런데 한 친구가 나를 쳐다보며 “배가 고팠지? 원래 배고플 땐 시장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 너무 많이 산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 왜 놀리던 친구들이 다른 친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 이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공감’ 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공감>

- 다음 3개의 상황을 모둠별로 나누어 토론하고 발표해 봅시다.
다.비겁한 가르침
 -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 강요된 피해자다움

공감이란?

-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
- 우리가 슬픈 이야기를 듣거나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하는 것은 공감하기 때문
 - 공감은 많이 듣는 이야기에 더 공감하는 경향이 있음
 - 공감도 중요하지만 약자를 위한 공감은 더 중요
(약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덜 들리기 때문)

예) 가와 나가 다투었을 때, 가의 이야기 위주로 말을 들으면 때때로
가의 행동이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비겁한 가르침(161쪽)

- 다음 이야기를 보고 여기 등장하는 행동의 문제점을 모두 찾아봅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 대중교통에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탑승합니다.
-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만지며 “귀엽다.” ” 예쁘다.” 했습니다.
- 아이나 엄마나 표정이 불편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 나 역시 아이의 손을 물어 보지도 않고 만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 몇 정거장 지나 할아버지가 내리자 엄마가 아이의 손을 닦으며 “씻으면 싫다고 말해야지.” 라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 아이는 빙빙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문제점 찾기	대안 찾기
<p>- 할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마구 잡은 것</p>	

- 아이의 입장을 미리 고려해 보고 공감하지 않으면 아이(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 어른이 먼저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166쪽)

- 다음 중 침묵이 동의라고 생각되는 것과 아닌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① 내 짝꿍이 새로 산 연필을 빌려 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고맙다고 하면서 연필을 가져갔습니다.
- ② 오랫동안 마음으로 좋아하던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친구가 나에게 손을 잡고 싶다고 말했어요. 나는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 ③ 어떤 아저씨가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겠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 ④ 토요일에 만나자고 했는데 일정을 확정할 수 없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동의인 것 (이유)	동의를 아닌 것 (이유)

참고 자료

- 동의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같이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말함

2014년 9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먼저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료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긍정적 동의'(affirmative consent)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때라고 정의했다. 즉,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가 중요할 뿐, 주취 상태나 과거 관계 등 부수적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이후 미국 내 유수 대학들이 위치한 일리노이 주, 뉴욕 주, 코네티컷 주 등이 뒤를 따랐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약 90%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면식이 있거나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거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스웨덴,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도 '예스 민스 예스' 료을 입법화했다. 스웨덴은 2018년 5월 성관계 전 상대방으로부터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성행위 당시 폭력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강간죄가 성립됐다.

스페인에서도 2016년 한 축제에서 5명의 남성이 18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일을 계기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스페인 법원에서는 가해자 2명이 촬영한 성폭행 장면을 증거 자료로 확보했는데, 여성이 조용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를 간접적 '동의'로 간주하고 강간죄가 아닌 '지속적 성적 학대' 혐의만을 인정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고, 결국 '예스 민스 예스'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 강요된 피해자다음(169쪽)

- 다음 사례를 보고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몇 년 전 해외에서 한 여성의 개인 SNS 계정이 해킹되어 본인이 소장하려고 찍어 둔 노출 심한 사진이 유포된 일이 있었어요.
- 그는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사진이 해병대에도 유출되었습니다.
- 그는 이 일은 내 잘못이 아니니 당당히 입대하겠다고 했습니다.
-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놀랍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왜일까요?

- 성폭력 피해자에게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스트잇으로 붙여 봅시다.)

여자가 조심하지
못한 게 문제이다



❖ 학습 정리

- 공감 -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
- 동의 - 다른 사람의 의견에 같이하거나 인정하는 것
침묵은 거절의 또 다른 표현 / “Yes means yes.”
- 피해자에 대한 공감
 -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 것
 - 피해자는 학습권이나 노동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리를 침해한 자가 가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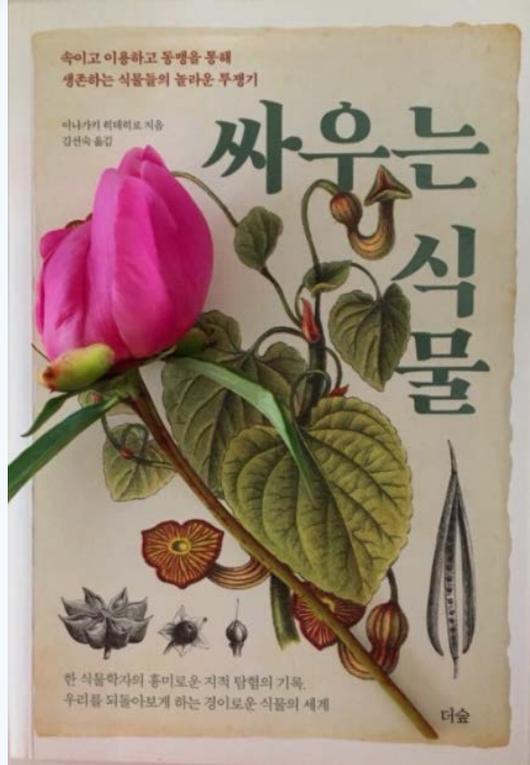
4. 공존

- 생각 열기
- 공존이란?
 - 1) 놀 권리, 공부할 권리
 - 2) 가족의 진화
 - 3) 사랑의 기술
- 학습 정리



❖ 생각 열기

- 다음 글을 읽고 공존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식물은 주변 모든 생물과 끝없는 전투를 해 나가지만, 도덕도 규칙도 없는 자연계에서 상부상조하는 생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기나긴 투쟁 끝에 식물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
- 아이러니하게도 저자는 “식물은 다른 생물과 공존 관계를 구축하고자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을 우선하고 먼저 챙겨 줌으로써 서로 이익을 가져오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답한다.
- 요컨대 식물은 균류나 싸운 끝에, 균류의 침입을 막는 것이 아닌 함께 사는 길을 택했다. 꽃가루를 노리는 곤충은 꽃가루의 운반책으로 쓰여 상리공생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씨방을 비대하게 하여 열매를 만들고 그것을 동물과 새에게 먹이로 주는 대가로 씨를 옮기도록 했다.
- 냉혹한 자연계에서 식물은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 투쟁하지만, 결과적으로 식물이 적과 공생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독 승리가 아닌, 동맹하고 연대함으로써 함께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
- <https://www.sciencetimes.co.kr/news/식물의 놀라운 투쟁기>

❖ 공존이란

이다.

공존이란?

- 공존 :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하는 것

<공존을 위한 성교육>

차별과 폭력 없이 서로 다른 개성과 취향, 지위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방법의 하나로 성교육이 제시될 수 있어요. 2009년 유네스코(UNESCO)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International Guidelines on Sexuality Education)’을 통해 ‘젠더 편견에 따른 사회적 관행과 폭력, 젠더 불평 등이 강화되는 방식에 대해 가르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간의 기본 권으로, 아동 청소년의 경우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자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성 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성장도 강조합니다.



- 놀 권리, 공부할 권리(221쪽)

- 다음 글을 읽고 답해 봅시다.



-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는 1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은 여성의 교육을 금지하였는데, 말랄라는 12세 때 영국 BBC 블로그에 이를 고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5세 무렵 탈레반의 총에 맞아 머리와 목에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말랄라는 여학생을 강제 퇴학시키거나 학교를 폐쇄하는 등 파키스탄에서 일어나는 탄압을 전 세계에 알려 결국 정부가 여성 교육 권리 법안을 통과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 ❖ 위키 예를 보고 권리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권리라고 생각할 때와 의무라고 생각할 때 다르게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까?

예시답변

- 공부를 통해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 포스트잇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권리를 적어 붙이다.

권리 :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

- 실컷 놀 수 있는 권리



- 가족의 진화(249쪽)

- 다음 문장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선택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 봅시다.



- ① 화목한 가족이라 하면 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아버지, 현명하게 가정을 경영하는 어머니, 모범적인 한두 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정상 가족을 생각합니다.
- ② 오로지 헌신만을 하는 엄마, 돈 잘 버는 아버지, 부모의 말을 무조건 잘 듣는 아이들로만 이루어진 가족은 흔하지 않은데, 이런 가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가족 모습을 부정합니다.
- ③ 가족의 모습은 다양해 졌습니다. 누군가는 장애를 가졌을 수 있고 누군가는 작절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 ④ 누군가는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누군가는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는 권위적인 가족은 겉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시답변

2. 우리 집에 대한 불만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보충자료>

-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4%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저출생의 문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2020년 합계출생율은 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출산율 0명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일까요? 혼자 사는 데 만족하면 인구수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 그러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히면 오히려 우리가 가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그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성 역할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1인 가구 비율이 각 35%, 51%나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략 1.9명의 출생률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들 국가가 시민 동반자 제도(Pacte civile de solidarité: Pacs)나 삼보 제도와 같은 가족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동거 커플과 비슷하지만 정부에 동반인으로 신고함으로써 세금 혜택과 양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을 결정하는 데 반해, 동반자를 해지하는 비율은 10분의 1 정도로 현저히 낮다고 하고요. 결혼은 아무래도 특정한 성 역할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제도는 개인성이 보다 존중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남성은 부양의 의무에서 여성은 집안일의 의무에서 자유롭겠죠.



- 사랑의 기슭(234쪽)

- 다음 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던 사랑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 ① 인터넷 등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SNS의 좋아요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인간은 타인의 관심과 인정, 지지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 ② 프롬(Erich Fromm)은 사랑은 인간적인 기쁨, 흥미, 이해, 지식, 유머, 슬픔 등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 나누어 주려면 목공 기술이나 의료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사랑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 ③ 사랑은 상대방을 나쁜 기준으로 지배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취향과 개성을 인정하는 평등한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시답변

사랑을 위해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진심을 전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해요.

❖ 학습 정리

- 공존 -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하는 것
 - 2009년 유네스코(UNESCO)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International Guidelines on Sexuality Education)’ 을 통해 ‘젠더 편견에 따른 사회적 관행과 폭력, 젠더 불평등이 강화되는 방식에 대해 가르칠 것’ 을 권고
 - ‘성적 자기 결정권’ : 아동 청소년의 경우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자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
- 공존을 위해 가족을 비롯한 관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 구분 없이 기쁨, 흥미, 이해, 지식, 유머, 슬픔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세요!!